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 도전’ 피겨 이해인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김채연·유영도 함께 추격
김채연 “상승세 이어갈 것”
유영 “더 좋은 모습 보이고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이해인(사진 왼쪽부터), 김채연, 유영.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고려대)이 “즐거는 마음으로 타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인은 20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 벨 센터에서 열리는 2024 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프리스케이팅은 22일 벌어진다. 쇼트프로그램을 하루 앞둔 19일 이해인은 벨 센터에서 공식 훈련을 가졌다. 밝은 표정으로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보일 기술 점점을 마쳤다. 함께 여자 싱글에 출전하는 김채연(수리고), 유영(경희대)도 함께 최종 점점을 했다. 이해인은 지난해 일본 사이타마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시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역대 두 번째였다.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2022~2023시즌을 기본 좋게 마쳤던 이해인은 2023~2024시즌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두 차례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는 연달아 4위가 돼 메달을 따지 못했다. 2022~2023시즌 금메달을 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는 11위에 머물렀다. 세계선수권에서 만회를 노리는 이해인은 “전체적으로 점프 퀄리티가 좋지 않아 뛰기 전에 망설이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회전수 부족이나 연결 점프 뛰기 전에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공식 훈련에서 생각보다 점프가 괜찮았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다”며 “점프를 뛸 때 재미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뛸 수 있을지 신경 쓰면서 연습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 금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수확해 적잖은 기대가 쏠리지만, 이해인은 “부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인은 “경기 전에 긴장은 되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며 “2년 연속 메달을 따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세계선수권에 처음 나왔다 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달 초 열린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서민규(경신고)가 남자 싱글 금메달을, 신지아(세화여고)가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딴 것은 이해인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이해인은 “후배들이 어린 나이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자랑스럽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기분이 다 좋아졌다”며 “어린 선수들이 잘해줘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흐뭇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번 시즌 4대륙선수권에서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딴 김채연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김채연은 “컨디션이 괜찮다. 조금

떨리긴 하지만, 재미있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나선 시니어 세계선수권에서 6위에 오른 김채연은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마지막 조에서 연기한다. 그게 가장 다른 점”이라며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2년 이후 2년 만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유영은 “설레기도 하고 그만큼 긴장도 된다. 준비한 것을 잘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영은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공식 훈련 때 리츠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며 “컨디션을 잘 관리해 쇼트프로그램에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했다. /뉴스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



국립태권도박물관, 문체부 평가 결과 전시 등 우수 결과 얻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온·오프라인 사업 적극 추진 ‘결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김태균)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실시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박물관 운영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인증’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 49관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에 대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국립태권도박물관을 포함한 33관에 대해 인증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운영 내실화와 문화 서비스 향상을 중점으로 ‘학예 인력 증원’, ‘수장고 증축’,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전시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태권도 지식자원을 활용한 ‘태권도 라키비움 포털 구축’과 ‘공개 서비스’ 제공, ‘태권도 라키비움 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해 일반에 공개했다. 또한, 소장 자료 중심의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 협업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인증 획득은 국립태권도박물관 전시 및 자료관리, 교육, 공적 책임 등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국립 박물관으로서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전파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말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달까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진행했다. /무주=전문기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전국대회 ‘첫 승전보’

최장배 전국근대5종 참가
김우철 남자5종 개인 금
홍성 4종 릴레이 은 등 획득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최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1회 최장배 전국근대5종경기에 참가해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올해 1월에 창단한 완주군청 근대5종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선수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최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1회 최장배 전국근대5종경기에 참가했다.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는 김우철, 형태국, 이화영, 김예나, 김세웅, 윤민중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형태국 선수를 제외하고 5명의 선수가 참가해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우선, 김우철 선수가 남자 5종(개인)에서 금메달을, 김우철·이화영 선수가 혼성 4종 릴레이에서 은메달, 김우철·김세웅·윤민중 선수가 남자 5종(단체) 경기에서 은메달, 이화영·김예나 선수가 여자 5종(단체)에서 동메

달을 따냈다. 창단 후 치러진 첫 대회에서 참가 선수 전원 메달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근대5종 선수단은 내달 치러지는 전국대회를 비롯해 6월 전국대회에도 참가해 기량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임성택 근대5종 감독은 “창단 후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 뜻깊게 메달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선수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은 오는 4월 전국근대5종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근대5종 종목의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달마 응원단 투어’로 축구·관광 동시에

익산시, KTX·K리그·관광 연계 ‘스포츠 관광상품’ 출시

익산시가 스포츠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여행상품을 출시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는 코레일 전북권여행센터와 함께 KTX열차와 K-리그 경기, 익산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관광상품은 ‘달마(달려라 마룡) 응원단 투어’로 KTX 열차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K-리그 경기와 익산의 백제 문화에 탐방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당일코스와 1박2일 코스를 운영한다.

당일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40분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 도착 후 점심 식사를 즐긴다. 이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한 뒤 미륵사에서 관광해설사와 함께 백제 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이다. 1박 2일 프로그램은 1일 차의 경우 당일 프로그램 코스와 동일하다. 숙박 후 이튿날 익산의 교도소(교도소 세트장)와 아가페 정원을 방문한 뒤 중앙시장에서 자유 식사를 마치고 익산역에서 오후 1시 31분 열차에 탑승할 예정이다.

달마 응원단 투어는 오는 30일 울산전 경기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예약은 코레일 전북권여행센터(063-855-7715)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투어 상품에는 KTX 왕복 탑승권과 일부 식사, 시티투어 탑승권이 포함돼 있으나 K-리그 축구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은 포함되지 않아 개별 구매해야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투어 참가자에게는 계좌입 20%, 상품노티터 10% 할인쿠폰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열차연계 상품 외에도 시티투어 버스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다. 탑승은 익산역에서 13시에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1인당 2,000원, 감면대상자는 1,000원이며, 예약은 문화관광산업과(063-859-5824, 5810)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그라운드 서학 2024

GROUNDS
SEOHAK

김누리 이주원
손은영 박미정 박재연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ē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ART ART GALLERY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서트서학